

광주일고, 진흥고 꺾고 봉황기 8강

선발 전원 안타...3·6회 5점씩 빅이닝 만들며 13-4 콜드승

광주일고가 봉황기 16강전에서 '지역 라이벌' 광주진흥고를 꺾었다. 광주일고는 10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49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전에서 진흥고를 13-4, 7회 콜드승으로 제압했다. 광주일고가 장단 13안타를 터트리면서 선발 전원 안타를 장식했다. 2회 광주일고가 선취점을 냈다. 김미르가 몸에 맞는 볼로 나간 뒤 도루로 2루까지 향했다. 김다운의 희생번트에 이어 송진형의 2루타가 나오면서 광주일고가 먼저 득점에 성공했다. 그리고 3회 광주일고가 '빅이닝'을 만들면서 일찍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3회초 1사에서 정태백이 중전안타로 출루하면서 공격의 물꼬를 텄다. 최민규의 몸에 맞는 볼이 나오자 진흥고가 투수를 김재민에서 이상준으로 교체했다. 김대홍이 바뀐 투수를 상대로 볼넷으로 골라내면서 만루를 채웠다. 1사 만루에서 류승민이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지만 김미르의 좌전안타가 터졌다. 좌익수의 포구 실책까지 겹치면서 루상에 있던 주자들은 물론 타자주자 김미르까지 홈에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5-0이 됐다. 광주일고는 김다운과 배강의 2루타를 묶어 3회에만 5점을 뽑아냈다.

진흥고가 3-4-5회 1점씩 보태며 추격에 나섰다. 6회 초 다시 한번 광주일고의 타선이 폭발했다. 선두타자 한정민의 좌측 안타를 시작으로 최민규, 김대홍, 유승민이 연속 3안타를 터트렸다. 몸에 맞는 볼과 상대의 폭투까지 더해 광주일고가 다시 한번 5득점의 빅이닝을 장식하면서 12-3을 만들었다. 그리고 7회 1점씩 주고받으면서 7회 콜드게임으로 경기가 마무리됐다. 광주일고 선발 김강호가 4이닝 3피안타 1볼넷 4탈삼진 2실점 1자책점의 호투로 초반 싸움을 이끌었다. 한중희가 두 번째 투수로 나와 1실점을 했지만 최한결-정원진이 남은 2이닝을 무실점으로 처리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했다. 광주일고는 12일 오전 11시 8강전을 벌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고 김홍빈 대장,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후보에

양궁 김수녕·축구 박항서·고유상철 감독도 올라

열 손가락 없는 장애인으로서 세계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산악인 고 김홍빈(사진) 대장이 2021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후보로 선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하는 국민지도 조사(국민투표)를 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김 대장 외에도 대한체육회는 양궁의 김수녕, 축구의 박항서,故 유상철 감독을 스포츠영웅 후보로 선정해 국민 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스포츠영웅은 선정위원회 및 평가기재단 정성평가 70%와 국민지도 30%를 합산해 선정된다. 투표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투표에 참가한 이들 중 총 500명을 선정해 음료 기프트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홍빈 대장은 지난 7월 자신의 마지막 히말라야



고봉인 파키스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 등정에 성공한 후 하산 도중 실종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선수 7명 전원 스페셜올림픽대회 메달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 클럽 선수단. <광주장애인협회 제공>

광주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선수 7명 전원이 배드민턴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따냈다. 10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제주 서귀포시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열린 '제15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 하계대회'에서 이같은 성적을 거뒀다. 광주 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 배드민턴선수단은 모두 금메달 4개를 비롯해 모두 14개 메달(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을 목에 걸었다. 메달 획득 선수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7명

전원으로, 김시연(금2개), 정다운(금1,은1), 윤보민(은2), 최서원(금1,동1), 안수아(은1,동1), 정휘민(은1,동2), 나시혁(동1) 등이다.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는 발달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최고 권위 있는 대회다. 전국 최초로 꾸려진 광주시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은 배드민턴, 탁구, 파크골프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동호인부와 선수부, 연령별, 장애유형별 클래스를 구성하는 등 수준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연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근대5종 광주시청 전용태 국가대표 선발

전남도청 서창완도 태극마크

올여름 도쿄에서 한국 근대5종에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안긴 전용태(광주시청)와 여자부에 출전했던 김선우(경기도청), 김세희(BNK저축은행)가 새로운 시즌에도 태극마크를 단다. 대한민국5종연맹은 10일까지 경복궁의 국군체육부대에서 2022 국가대표 선발전을 개최한 뒤 남녀 각 7명의 대표 선수를 확정했다.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근대5종의 새 역사를 썼던 전용태는 연맹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우선 선발됐다. 연맹 선발 규정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등 주요 대회에서 1년 내 입상한 선수는 심의 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강록(국군체육부대)이 선발전 남자부 경기에서 함께 1455점으로 1위에 올랐고, 김승진(인천광

역시 체육회), 박우진(국군체육부대), 서창완(전남도청), 문주성(BNK저축은행)도 선발전 성적에 따라 뽑혔다. 전용태와 함께 도쿄올림픽에 출전해 남자부 4위에 올랐던 정진화(LH)는 올림픽 때부터 겪은 크고 작은 부상 여파로 이번 명단엔 들지 못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는 내년 중 별도의 선발전으로 가릴 예정이라 정진화는 추후 여기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여자부에선 정민아(BNK저축은행)가 1308점으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올림픽에 출전했던 김선우(1300점)와 김세희(1297점)가 각각 2, 3위에 올랐다. 김세희는 올림픽 때 여자부 역대 최고 성적인 11위를 기록했고, 김선우는 17위에 자리한 바 있다. 이들 외에 김은주(강원도체육회), 유수민(경기도청)도 선발전 성적으로 대표팀에 승선했다. /연합뉴스



최승실(가운데) 감독이 광주시청 여자 양궁 선수들과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오고 싶어하는 팀 만들어 양궁 명가 재건”

최승실 신임 광주시청 양궁 감독

“선수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팀으로 만들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최승실(51) 광주시청 양궁팀 감독은 지난 8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청 양궁팀을 명문팀으로 재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 출신인 최 감독은 광주제과와 한국체대를 졸업하고 지도자의 길로 들어섰다. ‘선수 시절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그는 자신과 같이 진로를 위해 고민하는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지난 1996년 광주제과 양궁감독을 시작으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6년 리우올림픽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동하면서 그는 ‘소통하는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감독을 맡자마자 선수들에게 첫 제안을 했습니다. 매일 오전 훈련 전에 티타임을 정례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흥겹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본적인 바탕에서 팀 전력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수나 팀의 목표는 명확해야 합니다. 성적이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지론입니다.”

지도자·행정가 경험 팀에 접목

맞춤형 훈련으로 체질 개선 파리올림픽 우리 선수 출전 목표 2025세계선수권 유치 도울 것

최 감독은 2016년 12월부터 대한양궁협회 경기부 차장을 역임한 후 2019년부터 사무처장을 맡아 각종 국내외 대회를 치러냈다. “지도자로 생활했던 것보다 국제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현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도자, 행정가로서 경험과 노하우를 광주시청 팀에 접목해보고 싶습니다. 활을 잡았던 초심으로 돌아가 후배이자 제자들인 선수들과 필드에서 함께 호흡하며 광주양궁의 전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최 감독은 과감하게 이번 시즌 마지막 대회 등 크고 작은 대회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대신 맞춤형 훈련으로 전력을 서서히 끌어올리고 팀 체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보배, 이특영, 최민선의 경우 대표팀 경험이나 경기 운영 능력이 탁월한 만큼 기술적인 부분보다 집중적으로 체력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세은과 이보영은 기술적인 부분에 비중을 두고 동계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팀의 단점을 보완하고,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선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코칭을 도입해 기량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2024 파리올림픽에 우리 선수가 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장 내년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기보배가 출전하는 만큼 아시안게임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광주는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스페인과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이달 세계양궁연맹 현장실사를 앞두고 있다. 최 감독은 “광주가 한 발 앞서고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동안 대한양궁협회 사무처장을 맡아 광주 시, 광주시양궁협회와 보조를 맞춰왔습니다. 정성평가 항목인 세계랭킹 상위 선수 보유라든지 국제대회 유치 경험 등 여러 부분에서 광주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주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사진=연영기 기자 penfoot@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이터널스
2관	이터널스
3관	강릉
4관	이터널스
5관	이터널스
6관	이터널스, 고장난 론
9관	아담스 패밀리 2, 베논 2: 렛 데이 비 카니지
7관 씨네케틀	1984 최동원 베논 2: 렛 데이 비 카니지
8관 씨네케틀	툰, 고장난 론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극단 제17회 정기공연
나의 살던 고향
일시 : 2021.11.25.(목)-27.(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11-2759

GAC특별기획공연
김수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11.28.(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